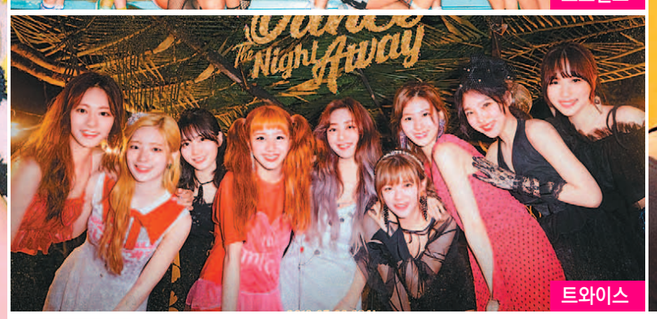
여름 가요시장, 여자가수들 2색 대결

‘발랄’ 걸그룹 vs ‘섹시’ 솔로


경리


모모랜드



트와이스


제시


러블리즈

컴백 앞둔 트와이스 발랄함 강조
모모랜드·세미나도 청량미 뽐내
경리, 5일 솔로 데뷔…섹시 부각
청하·제시 ‘과감한 댄스’ 기대감

‘발랄 VS 섹시’

‘걸그룹 대전’이 한창 벌어지는 여름 가요시장에 솔로 여가수들까지 가세해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 다른 매력으로 무장하고 선의의 대결을 펼친다. 누구 하나 ‘듣는 음악’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볼거리까지 앞세워 무대에 오른다.

이달 최고조에 달한 ‘여름 대전’은 ‘2색 대결’로 뚜렷하게 구분 지을 수 있다. 걸그룹은 더욱 발랄해졌고, 솔로 가수들은 한층 농염해졌다.

9일 신곡 ‘댄스 더 나잇 어웨이’로 돌아오는 트와이스는 그동안 사랑받았던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한껏 강조한다. 컴백을 앞두고 공개되는 티저 영상이나 이미지 속 트와이스는 발랄한 소녀의 매력이 뚜렷하다. 이들에 앞서 모모랜드도 ‘제2의 뿜뿜’으로 통하는 ‘배엠’을 통해 ‘뿜뿜’의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 역시 셔플댄스의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춤을 앞세우고 멤버 개개인의 귀여움과 친근함으로 팬덤을 확장시켜나가고 있다.

러블리즈와 구구단의 유닛 세미나도 그룹의 대표 이미지인 발랄함을 내세웠다. 4월 미니앨범을 내고 활동한 러블리즈는 이달 1일 다시 신곡 ‘여름 한 조각’을 내고 여름 대전에 합류, 화사하면서도 청량감 있는 느낌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10일 새로운 유닛으로 활동하는 구구단의 세정, 미나, 나영도 각자의 이름 한 글자씩 딴 ‘세미나’로 뭉친다. 이들은 데뷔 후 줄곧 유지해왔던, 소녀답고 발랄한 매력에 더위를 날려줄 청량미를 더해 ‘더위 사냥’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에 대항하는 솔로 여가수들은 ‘섹시 카리스마’라는 키워드로 정리된다. 나인뮤지스의 경리, 아이오아이 출신 청하, 제시 등은 여름이라는 계절에 맞게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댄스 음악으로 돌아온다. 무엇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섹시’ 콘셉트를 내세우고 ‘섹시 퀸’ 계보를 이어갈 태세다.

도발적인 눈빛으로 사랑받았던 경리는 5일 솔로로 데뷔한다. 그룹 활동에서 보컬 실력까지 인정받은 만큼 그의 첫 도전에 시선이 모인다. 특히 경리는 솔로로 첫 선을 보이며 트레이드마크인 섹시함을 부각시켰다. 그의 데뷔곡 ‘어젯밤’은 트렌디한 팝 댄스곡으로 경리만의 섹시한 느낌을 극대화했다. ‘섹시 백 이즈 경리 백’(Sexy Back is 경리 Back)이 콘셉트다.

뒤를 이어 청하도 18일 신곡을 발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 아이오아이 출신 가운데 유일하게 솔로로 자리매김한 청하의 선전이 이번에도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청하는 엠넷 ‘프로듀스 101’ 출연 당시 파워 넘치는 춤 실력으로 화제를 모았고, 솔로 활동에서도 음원차트와 음악 방송에서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탄탄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신곡에서도 자신의 강점을 살려, 섹시하면서도 파워풀한 댄스가 돋보이는 무대를 준비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센 언니’ 제시도 출격한다. 제시는 6일 디지털 싱글 ‘다운’을 통해 시원한 랩과 섹시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제시만의 걸크러시 매력도 보여줄 계획이다. 2일 공개된 티저영상에서 제시는 파격적이고 과감한 힙 댄스를 선보여 기대감을 주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3년 만에 귀국한 유호정 ‘방송가 나들이’

SBS ‘미우새’ 스페셜 MC로 참여
배우활동 재개 여부는 아직 미정


유호정

미국에서 최근 귀국한 연기자 유호정이 오랜만에 방송 나들이에 나선다.

3일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유호정은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미우새) 스페셜 MC로 11일 녹화에 참여한다.

2015년 SBS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이후 TV 출연은 약 3년 만이다.

유호정과 ‘미우새’와의 만남은 제작진의 적극적인 러브콜로 성사됐다. 유호정은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에서 생활해왔다. 때문에 유호정은 ‘미우새’ 제작진의 출연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유호정이 개인적인 일로 잠시 귀국하면서 제작진과 다시 연락이 닿았다. 국내에 머무르는 일정과 제작진의 의견이 맞으면서, 유호정은 제작진이 그동안 보여준 성의에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 러브콜에 응하게 됐다.

유호정이 ‘미우새’ 스페셜 MC로 깜짝 참여하면서 활동 재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그 아쉬움은 올해 개봉을 앞둔 영화 ‘그대 이름은 장미’를 통해 달래게 될 전망이다. 유호정은 2016년 연말 영화촬영을 끝내고 개봉을 기다려왔다.

당분간 국내에서 머물 계획인 유호정은 연예계 ‘절친’인 오연수와 이혜영 등과 만나며 오랜만에 한국생활을 즐기고 있다. 또 SBS 드라마 ‘기름진 멜로’에 출연중인 남편인 연기자 이재룡의 내조에도 힘쓸 예정이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박정민·최우식 ‘주연급 우뚝’…충무로에 새 바람

‘변산’ 박정민, 연기로 청춘 위로
‘마녀’ 최우식, 현란한 액션 눈길


박정민


최우식

배우 박정민과 최우식이 스크린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 넣으며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 일부 흥행 파워를 지닌 배우들에게만 쏠리는 듯했던 충무로의 시선도 이제 주연급으로 우뚝 선 이들에게 향하고 있어 향후 그 활약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

박정민은 4일 개봉한 영화 ‘변산’으로 재능과 역량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2015년 ‘동주’로 인연을 맺은 이준익 감독과 또 다시 힘을 모은 ‘변산’에서 그는 래퍼로서 성공을 6년째 꿈꾸는 청춘. 극중 랩 가사를 직접 쓰기도 한 그는 ‘동주’로부터 일군 스크린 주역으로서 나래를 활짝 펴는 중이다.

그의 활약에 힘입은 영화는 개봉을 앞두고 시사회를 통해 공개돼 호평을 받았다. 이준익 감독 특유의 따스한 시선을 박정민은 연기로 구현하며 청춘을 위로해 젊은 관객의 관심을 모은다.

최우식은 개봉 첫 주말을 지나며 2일 100만 관객을 돌파한 박스오피스 1위 ‘마녀’로 흥행의 단맛을 보고 있다. ‘마녀’는 10년 전 의문의 사고가 일어난 시설에서 탈출한 뒤 평범하게 살아가던 여고생과 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액션으로 버무린 영화. 최우식은 미스터리한 남자 역을 맡아 여고생 앞에 나타나 사건 속으로 뛰어든다. 기존에 내보이지 못했던 현란한 액션 연기를 펼친 최우식은 ‘마녀’ 흥행의 또 다른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특히 그는 2016년 ‘부산행’, 지난해 ‘옥자’에 이어 여름시즌 극장가에서 흥행 파워를 과시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부산행’의 연상호, ‘옥자’의 봉준호 그리고 ‘마녀’의 박훈정 감독 등 이미 관객의 두터운 신뢰를 확보한 연출자들과 합을 맞춤으로써 그의 연기 역량이 결코 허명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각각 2010년과 2011년 데뷔해 짧지 않은 시간 조연급으로서 카메라 앞에 나섰던 박정민과 최우식은 이 같은 성과를 발판 삼아 현재 막바지 촬영 중인 ‘사냥의 시간’에서 힘을 모은다. 충무로 ‘젊은 피’로 인정받는 두 사람이 ‘사냥의 시간’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해시태그 컷



“준하형, 아침부터 왜 이래”

방송인 정준하가 팬들에게 활기찬 하루를 열자며 코믹한 모습을 공개했다. 욕실에서 머리를 감던 도중 머리카락에 샴푸 거품이 그대로 묻어난 사진을 공개하며 “시원하게 머리감고! 오늘도 즐거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자”고 했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는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이정연 기자

#스포츠동아 #정준하 #신나게 #덧니 #스마일

이 영화

‘디판’(2015)



유럽이 겪은 난민 고민 난민 배우가 직접 연기

난민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무사증 제도로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 549명의 난민 지위 여부를 둘러싸고 인류애적인 시선과 함께 신중론이 교차한다.

내전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난민 문제는 우리보다 유럽이 먼저 겪었다. 수년 전부터 유럽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고, 인간의 생존권과 직결된 이슈인 만큼 이를 영화에 담으려는 시도도 잇따랐다. 2015년 개봉한 프랑스 영화 ‘디판’은 난민 소재 작품 가운데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다.

‘디판’은 내전의 현장을 담은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스리랑카 내전으로 아내와 자녀를 잃고 프랑스로 망명하려는 주인공은 브로커를 통해 ‘디판’이라는 남자의 신분증을 산다. 내전으로 형제를 잃은 여인, 부모를 잃은 소녀를 만난 디판은 프랑스 망명을 위해 이들과 가짜 가족으로 위장, 파리 외곽에 가까스로 자리를 잡는다.

의지와 상관없이 삶의 터전을 잃은 디판 가족이 그마나 작은 희망을 갖고 정착한 곳은 또 다른 의미의 전쟁터였다. 무자비한 갱들이 지배하는 동네에서 디판 가족의 삶은 또 다시 위협받는다.

‘디판’은 난민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물론 난민 문제를 다루면서 지나치게 극적인 사건을 이야기 장치로 활용한 것을 놓고 관객 평가가 엇갈렸지만, 우리보다 먼저 난민 문제를 겪은 유럽 사회의 고민이 담긴 작품이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주인공 디판을 연기한 배우 제수타산 안토니타산은 실제 스리랑카 반군으로 활동하다 프랑스로 망명한 난민 출신 배우다. 영화는 제68회 칸 국제영화제 최고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이해리 기자

편집 | 김청조·김대건 기자